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호 [루체 제25156호] 주제 105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자주와 정의의 장엄한
회성으로 위대하고 강대한
우리 조국,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
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
하는데 공헌한 핵과학자
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12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우리 당에 끌없이 충실했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
하여 조국수호와 부강조국
건설의 강위력한 보검인
수소탄의 개발에 성공함
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병진
로선의 거대한 생활력과
새로운 경지에 울려선 주체
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
가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전략적 구상을 빛들어
백결불굴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으로 민족만대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제국주의 전쟁 괭풀의

핵위협과 공갈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든
수소탄개발자들의 위훈을 깊이 평가
하시고 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
하도록 하시는 최상의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자
의 환희로 들끓고 있는 속에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반만년 민족사의 특대 사변을
안아온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투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고 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애국의 초침을 당의 숨결에
맞추어 투쟁한 동지들 모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중의 영웅이며 애국자종의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직접 당 및 국가 표창을 수여하게
된데 대하여 끝없이 간개무량하게 생각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보유국이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보하고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핵개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동지
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사변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면광대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 수 없는
큰 힘을 안겨주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시였다.

동지들이 바친 고심
어린 탐구와 애국
충정의 땀방울에 의해
일심 단결된 정치
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하시였다.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
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우리
를 위협공갈 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동지들은 미제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펼치고 정의와
부정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 조선로동당
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날 부국강병을 바라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宿愿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현실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미더운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합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
하여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
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이룩한 영웅적
공적과 위훈은 주체의 사회
주의조국과 우리 당역사와
더불어 전주년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고 떠밀어주는 애국적인
붉은 과학자, 동지들과 팔을 끼고 함께
싸워나가는 혁명의 길보다 더 보람찬
길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미더운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과 함께 가는 주체혁명의
앞길에는 앞으로도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
만이 펼쳐지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시
었다.

우리 당은 승리와 영광의 해인 2016년
의 장엄한 서쪽으로 울린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울해를
승리자의 해로 이끌어 강성국가건설의
대사사시를 써나가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들인 우리 인민에게 더 큰 승리의
월계판을 안겨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횡포무도하고
불법무도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악착한 경제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봉파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사면
팔방으로 달려들고 있지만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들에 그려했던 것처럼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강인 담대한 정면돌격전을
벌려 적들이 최강의 핵보유국인 우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오늘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두뇌전, 실력전에 총매진, 총질기
함으로써 당의 핵무력건설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반민반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온 전제 침기자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나리의 핵병기장을 지켜선 과학자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을 바란다고 고무격려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

에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파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탄도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병진로선판철에 이바지한 평범한 혁명전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참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며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데 이어 오늘은 또다시 영광파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겉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소탄개발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투원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 위력한 수소탄의 폭음으로 주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추켜든것은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강행되는 미제의 핵위협과 공갈,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제재한다, 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다 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중앙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핵공격을 기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핵무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참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꾸바혁명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꾸바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현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새 확언합니다.

형세적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까스뜨로루쓰

2016년 1월 6일

아바나

당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자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라선시 군민련환대회 진행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 성공을 경축하는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라선시 군민련환대회가 12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얹쳐들이 담보해주는 역사의 대장기, 민족사적인 대사변을 맞이한 크나큰 환희와 주체의 해 강국의 위용을 민망에 떠밀며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루어나갈 혁명적의지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 넘쳤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파 위대한 봉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 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살수하자!», «민족사적인 인민 첫 수소탄 시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울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구호판들을 글발을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지방당, 청진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 총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을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 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도민민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 도청년동맹 위원회 부위원장 최철, 강제공업대학 부부장 장혁창이 영접 척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때 대하여 그들은 연습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율한 명도밑에 수소탄까지 가진 해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강조하였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강권으로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가피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연설자들은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김정은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당중앙파·사상도·승진도·발길을 함께 하며 수령의 윤총관철전과 당정책옹위전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깊이 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은 우리 당의 끝나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님들의 혁명 위업을 떳떳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호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김일진 사리원시당위원장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깊이 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 깊은 울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뚫어나갈때 대하여 그들은 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에 흔쾌히 집중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친다면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풍폭발사시켜 침략자들을 이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강성국가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김일성·김정은동지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펼칠 날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를 어찌보려면 시대는 완전히 끌끌 끌었지만 그들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전군은 그 무엇으로

(시) 1월의 경의

한 광 춘

전승의 날을 맞은듯
명절처럼 설레는 거리
팡장에 환희의 파도가 굽이치는데
가슴뜨거지 사무쳐오는
아, 우리 수령님을 생각

우리 수령님을 염마한 기뻐하시라
한평히 달신 강대한 조선이
이 행성우에 우뚝 선
오늘의 경사를 아십다면
반단년 민족의 숙원을 끝

이 역사의 대장거를 아신다면...

수소란의 장례한 퇴성이여

너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지역사강의 초행길에서
우리 수령님 울리신
새 조선의 첫 기관단총 총성에서 시작된
무진막강한 자위의 퇴성

어려오거나
석수흐르는 군사리의 간도를 걸으시며
자위의 총검을 벼려주신 우리 수령님

(시) 폐승의 거리에서

문 용 월

수소란성공의 기쁨으로
설에는 수도의 거리
불안하고 얼싸안고
기쁨을 터치는 얼굴들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들이

이런 폐승의 날에 애 눈물을 보인들
어떠라
이 목숨같은 해보집이 없었다면
벌써 망국노의 피눈물을 쏟았을 민민이
거니
제손에 수소란을 물어친
승리자의 눈물임에야

미더울구나
단 한번의 퇴성으로
원쑤들의 광기를 끊어버리고
핵전쟁피물들 휘둘러버린
우리의 장한 수소란이여

너는
원자들의 핵과 핵의 융합만이 아닌
자주의 신념과
자강의 정신으로 융합된
주제조선의 피더운 생명체

너로 하여
미제의 칼부림이 끝나는 이 행성엔
한국의 칼부림이 끝나는 이 행성엔
안정과 평온이 깃들리
전쟁의 불길들이 영원히 가시여진 이 땅에

수소란도 평평 민들이 내는 오늘의 내 조국이
그날에 내다보신 강국의 모습이 아니던가

못 잊어라
시현의 눈보라 훔들어치면
역사의 갈길에서
노예가 되었는가
자주적 근위병이 되었는가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애국의 심장을 불태워
자강의 만년 터전을 다져 주신 우리
수령님들

행성을 뒤흔든 수소란의 메아리는
그 위대한 한평생에 드리는

최대의 경의

자랑한 승리의 보고

오, 선군조선의 위대한 대승리

오늘도 배일도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이 조선은 영원히

승리의 해와 달을 맞이하리라

오, 나는 기쁨이 높뛰는 폐승의 거리를
걸는다

(시) 종

인류의 면전에서

『유일초대국』-

미국의 그 힘상을 단호히 깨버렸다

승냥이 미제의 핵몽동이를

단호히 깨어버렸다

강력한 수소란폭발로

이제는 억년이 가도

미국들이 더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고

짓밟지 못하고

미시상 조선사람을 모욕하지 못하는 시대

그 무궁한 승리자의 억년이

장장한 폐성을 터친 것이다!

평화한 밀조차

풀처럼 아득해진 이 세계에서

보라, 인류의 땅상이며

살룩과 파파와 터로의 원흉

백악관과 펜타곤...

핵전쟁의 본거지들을 꾹꾹 - 눌러던으며

지부

박정철

미제의 면출을 끌려밀고 선 이 조선을

바로 이 땅에서

눈부시게 떠오르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보라

바로 이 조선땅에서

영원히 푸르르

우리의 행성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라

역사는 기억하리라

금문자로 새겨넣으리라

강국의 이 조선이 일어온 오늘

위대한 역사의 이날을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나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힌 미제

그 피비린 침략과 해위의 력사에

바로 조선이 종지부를 짚었다

오, 그날은 2016년 1월 6일!

(시) 폭

수소란의 폭발은 한순간

허나

폭풍은 끊임없이 이 행성을 친감한다

환희에 끊는 가슴과 가슴들에

대륙과 대양을 넘고넘으며

정의로 끊는 이 강토의 지심에서

터져오른 그것은 강수란의 힘인가

존엄을 목숨처럼 여겨온 이 나라 인민이

5천년을 품고 온 강대국의 꿈이다

민족이 암고 온 숙원의 분출이다

당당한 자위의 선례

수소란의 폭발은 그 섬광에 비껴온다

번영의 만리대로를 내다보며

승리자의 웃음짓는 궁지높은 인민의

모습이

그리고 보여온다

마지막승리를 틀는 원쑤들의 그 물불이

무슨 말로 노래하랴 민족의 이 대경사

장하다 조선이

이 행성의 각각을 훈훈들이

자주의 궤도에 울려세운 내 조국

온갖 불의와 압제의 사슬을

지구밖으로 힘쓸어던지는 선군의 폭풍이

내 손을 더듬어

쿵쿵 - 높뛰는 이 심장에

조선공민의 증표를 뜨겁게 놀려대인다

그리고 목에 다시 불려 외운다

나는 강대국의 인민

존엄높은 조국의 아들

그 무엇으로도 누를길 없고

잠재울길 없는 이 폭풍은

수원만의 심장에 폭발을 편해 한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

승리의 힘성으로 편이어 터져오르리

오, 민족이 영원토록 고마움의 인사를 드릴

희세의 평장 김정은장군

답대 한 그이의 그나큰 심장과

인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터져오르는 조선의 폭풍이여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다

2016년 1월 6일

이 폭풍은

부강조선의 만대를 열어가리라!

(시) 장쾌하구나, 승리의 축포탄아

박현철

백두의 평장 김정은원수님

강인답대하신 그이의 품에 안겨

오늘부터 내 나라는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우러르는

세계평화옹호의 빙탄벽이 되었다

유일무이한 사회주의강국이 되었다

고마워라

내 조국은 수소란보유국으로

그 위용 만천하에 떨쳐주신 은혜

세계를 떠흔든 그 장엄한 폭음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축복한 교향곡으로

새해의 첫 친군길에 울려펴지나니

어질씨구 좋구나...

정말이지 이런 날엔

우리의 일길을 막아서는 원쑤들

에 간장이 다 녹아나게

승리의 축배잔도 보완환도 높이 들자

이제 머지 않아 최후승리의 그날도 오리

천백배의 힘과 용기가 속는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일레는 달라도

하는 일 모두가

원쑤에겐 전률을

내 조국에 자랑한 승리를 주는

조선의 『수소란』이 되게 하자

아, 세계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민족의 은인 김정은원수님

영원한 승리의 축포성을 울려주신

그이를 우러러 부르는 강사의 노래

내 나라 삼천리에 세세년년 울려퍼지리

산이여 동하라

바다여 물어번지라

우리의 수소란이

장대한 폭음을 울린 이 땅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서

수천수만의 수소란이 폭발한다

팡장과 거리거리

온나라는

반달에 처음보는 감격의 열광으로

격정의 화산을 떠치는구나

장대한 폭음을 터친 이 땅

우리의 힘은

우리의 피줄속에 뻗친다

쏟는 땀이 그대로 수소란이 되는듯

가슴마다 불이 일고

내닫는 발걸음마다 폭풍이 있다

보아라

출강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 열의로 들끓는 협동벌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기쁨안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각자 농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새 우량품종도입면적을 늘이기 위한 작전

선천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과 그들의 심장을 토로했다.

종전 보다 수백의 양곡을 증수하기 위한 대량하고 통이 큰 농사작전이 펼쳐졌다. 미장호동 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방으로는 많은 일군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나라가 정치사상강국,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자마자 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방으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할복포까지 쏟아지게 한다면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

그 과정에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대로 우량품종면제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품종선택만 잘해도 많은 양곡을 더 생산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때문이다.

주제총선과 그 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사실 군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대용을 암이오자, 이것이 흥분으로 격동된 그들의 심장을 토로했다.

종전 보다 수백의 양곡을 증수하기 위한 대량하고 통이 큰 농사작전이 펼쳐졌다. 미장호동 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방으로는 많은 일군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나라가 정치사상강국,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자마자 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방으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할복포까지 쏟아지게 한다면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

그 과정에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대로 우량품종면제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품종선택만 잘해도 많은 양곡을 더 생산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때문이다.

주제총선과 그 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방도가 명백하면 실성이 솟구치고 배짱이 세지는 법이다.

일군들이 얼마나 애썼는가는 새로운 모형태와 같이 분석하고 받아들여도록 작전하고있는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방법은 영양단지모의 일수

를 5~6일 되게 걸려 모를 내

는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논벼

의 뿌리활성성이 높아지고 빛합성

능력이 강해져 풍질보단 모순실

을 줄이면서도 정보당 알파수확

고 100~200kg 더 높일

수 있다.

군의 알록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일

군들은 종자확보에 선착점침을

넣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론

모토와 영양단지모를 대대적으

로 받아들일수 있게 모판재재를

꺼내기 장만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란조류생물활

성화비생산을 농사자비의 새 항

목으로 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천연의 소석회를 짚은 기간에

실어들어온 후원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수소탄보유국의 위용을 쌓을

포로 더욱 힘있게 파시할 결사

의 각오안고 우량품종도입면적

을 처음으로 20% 이상 더 높

여 농사차비시작부터 성과를 이

룩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

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주창일

면적을 대폭 높일수 있었다.

방도가 명백하면 실성이 솟구

치고 배짱이 세지는 법이다.

일군들이 얼마나 애썼는가는

새로운 모형태와 같이 분석하고

받아들여도록 작전하고있는 사

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방법은 영양단지모의 일수

를 5~6일 되게 걸려 모를 내

는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논벼

의 뿌리활성성이 높아지고 빛합성

능력이 강해져 풍질보단 모순실

을 줄이면서도 정보당 알파수확

고 100~200kg 더 높일

수 있다.

군의 알록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일

군들은 종자확보에 선착점침을

넣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론

모토와 영양단지모를 대대적으

로 받아들일수 있게 모판재재를

꺼내기 장만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란조류생물활

성화비생산을 농사자비의 새 항

목으로 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천연의 소석회를 짚은 기간에

실어들어온 후원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수소탄보유국의 위용을 쌓을

포로 더욱 힘있게 파시할 결사

의 각오안고 우량품종도입면적

을 처음으로 20% 이상 더 높

여 농사차비시작부터 성과를 이

룩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

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주창일

면적을 대폭 높일수 있었다.

방도가 명백하면 실성이 솟구

치고 배짱이 세지는 법이다.

일군들이 얼마나 애썼는가는

새로운 모형태와 같이 분석하고

받아들여도록 작전하고있는 사

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방법은 영양단지모의 일수

를 5~6일 되게 걸려 모를 내

는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논벼

의 뿌리활성성이 높아지고 빛합성

능력이 강해져 풍질보단 모순실

을 줄이면서도 정보당 알파수확

고 100~200kg 더 높일

수 있다.

군의 알록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일

군들은 종자확보에 선착점침을

넣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론

모토와 영양단지모를 대대적으

로 받아들일수 있게 모판재재를

꺼내기 장만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란조류생물활

성화비생산을 농사자비의 새 항

목으로 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천연의 소석회를 짚은 기간에

실어들어온 후원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수소탄보유국의 위용을 쌓을

포로 더욱 힘있게 파시할 결사

의 각오안고 우량품종도입면적

을 처음으로 20% 이상 더 높

여 농사차비시작부터 성과를 이

룩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

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주창일

면적을 대폭 높일수 있었다.

방도가 명백하면 실성이 솟구

치고 배짱이 세지는 법이다.

일군들이 얼마나 애썼는가는

새로운 모형태와 같이 분석하고

받아들여도록 작전하고있는 사

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방법은 영양단지모의 일수

를 5~6일 되게 걸려 모를 내

는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논벼

의 뿌리활성성이 높아지고 빛합성

능력이 강해져 풍질보단 모순실

을 줄이면서도 정보당 알파수확

고 100~200kg 더 높일

수 있다.

군의 알록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일

군들은 종자확보에 선착점침을

넣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론

모토와 영양단지모를 대대적으

로 받아들일수 있게 모판재재를

꺼내기 장만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란조류생물활

성화비생산을 농사자비의 새 항

목으로 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천연의 소석회를 짚은 기간에

실어들어온 후원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수소탄보유국의 위용을 쌓을

포로 더욱 힘있게 파시할 결사

의 각오안고 우량품종도입면적

을 처음으로 20% 이상 더 높

여 농사차비시작부터 성과를 이

룩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

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주창일

비료는 농업전선의 탄약

◇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역적파당에게는 앞날이 없다

외세와의 공조는 수치스러운 매국배족행위

세기와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가 우리 거예의 가슴을 모질게 허비고 있다. 날이 갈 수록 격화되는 북남대결로 하여 민족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조국同胞일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민족최대의 파업이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려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 통일문제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경지하여야 한다.

경에 하는 김정은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야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끌어내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 거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반반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호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거예가 어찌하여 70년이 넘도록 갈라져 있는가. 우리 민족이 그것을 원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이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열이라는 가슴아픈 비극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의 친미세력을 부추겨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땅우에는 이미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일떠섰을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분열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악랄한 채굴군이다. 이런 반통일적인 외세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담치는 것이다. 조선반도는 시정학적으로 대국들

의 이해관계가 얹혀있는 예민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것 해방된 우리 나라가 민족분열이라는 것을 강요당하게 된 것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폐권적자위를 차지하려는 외세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끼여들어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 있으며 북남대립의 격화로 반공화국고립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 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통일외교』을 들을 나서는 것은 외세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할 구실만은 아닙니다. 외세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조선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민족의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쳐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자주적위업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는 통일을 이루자마자 편을 한하고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끌어들인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파연 어떻게 되겠는가.

남조선당국의 외세와의 협의, 외세와의 공조로는 차주통일을 방해하고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으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매우 국매족행위이다.

반반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호에서 단

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거예가 어찌하여 70년이 넘도록 갈라져 있는가. 우리 민족이 그것을 원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강요당하는 것을 통해 전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라거나, 『주변나라와 세계로 통의 힘으로 주어진다』는 민족의 협회와 단합을 주장하는 통동은 뿐만 아니라 세계로의 겨드랑이에 기여하고 한반도에 외세의 겨드랑이에 밀려 기어드는 것이 북남관계개선에 불과 무익하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북남관계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주되는 원인도 남조선당국의 외세와의 공조책 등에 있다. 남조선당국이 온 겨레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의 간판밑에 외세와의 공조를 계속 강화한다면 초래될 것은 북남관계의 파국과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비굴한 청탁들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를 구실로 미국을 행각한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한 『통일외교』에 있었다는 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외교』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문제에 차운 능력을 높이고는 조국통일위원회와의 협의를 막